

20 YEARS
대학내일

Weekly

Special
죽을 용기로 살지
무책임하다는 말들에 대해

Cover Model
서울시립대 16 오시연

Advice
이런 것도 곧대? 라떼피셜,
곧대 소리 들어 억울했던 순간

Campus Life
어쩌다 발견한 대학 생활
벗어나고픈 이 설정값
누가 좀 리셋해주라!

나의 실패한 연애담
SNS 인증이 전부인 연애

덴니어그렘 통학할 때 편
당신은 어떤 유형의 통학러?

No.908

2019.11.4~2019.11.10
ISSN 2465-7883

2020년 동계 UST 연구인턴십

대한민국 청춘들이여,
과학기술분야의 국가연구소 현장을 직접 체험하라!!



| 선발인원 | 100명 내외

| 지원자격 | 4년제 대학교 학부 3, 4학년 및 석사과정 내국인 재학생
해외 대학의 경우 3년제 대학교 포함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 휴학생 및 졸업생은 지원 불가)

| 모집공고 | 2019. 11. 5.(화) 17시, UST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원서접수 | 2019. 11. 6.(수) ~ 11. 19.(화) 17:00

| 인턴기간 | 2020. 1. 2.(목) ~ 2. 21.(금) / 발대식 2019. 12. 27.(금)

- 참가자 전원 매월 활동비 지급
- 인턴 전원 출연(연) 석박사급 연구자와 1:1 멘토링 제도
- 참가자 역량강화를 위한 발대식/해단식 진행
- 이공계 소양교육(논문작성법 등), 인턴 간 네트워킹 기회
- 인턴기간 중 인턴 전원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2020학년도 전기 신입생
추가모집 안내**

- 모집 전공분야: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분야
- 원서접수: 2019. 10. 31.(목) ~ 11. 15.(금) 17:00
- 자세한 사항은 UST 입학 홈페이지 참조 (admission.ust.ac.kr)



오시연

서울시립대 영어영문학 16

Editor 서재경

Photographer 배승빈

Stylist 김아영

Hair & Makeup 이솔



©Kakao IX



이번 촬영 콘셉트가 '밤'이었는데요. 밤에 즐겨 하는 루틴 같은 것이 있나요?

저는 완전 올빼미형 인간이라 밤에 돌아다니는 걸 훨씬 좋아해요. 밤에 즐겨 하는 것 중 하나는 심야 영화 보기! 사람이 없는 텅 빈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 그 공간을 통째로 대여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밤 산책 하며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해요.

요즘 충남대에서 학점 교류를 하며 본가가 있는 대전에서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소감은?

혼밥 탈출해서 너무 행복해요! 하하. 사실 서울에서 자취하는 4년 동안 이사할 때를 제외하곤 부모님께서 서울에 한 번도 와보질 않으셨어요. 솔직히 조금 서운했죠. 아마 엄마 아빠께도 저 없이 지낼 적응 기간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함께 지내는 요즘은 전보다 훨씬 화목해졌어요.







노을 사진 찍는 게 취미라면서요? 노을 맛집 좀 추천해주세요.

올림픽공원, 서울숲, 한강공원 같이 탁 트인 곳에서 하늘을 보면 정말 예뻐요. 요즘은 대전의 목척교, 엑스포다리 같은 곳도 자주 찾고요. 바쁘거나 시간이 없을 땐 하다못해 학교 도서관 건물에서라도 노을을 챙겨 봐요.

힘들 때 나를 다잡아주는 문장이 있나요?

4학년이 되면서 취업이 가장 무거운 고민으로 다가와요. 그때마다 부모님께서 어릴 적부터 해주셨던 얘기를 늘 떠올려요. “욕심부리지 말고 한 걸음씩 걸어라”라는 말인데요, 저에겐 그 어떤 유명한 문구보다 와 닿는 문장이예요. 차근차근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분명 좋은 날이 있겠죠!



오시연의 스토리가
더 궁금하다면?

📷 @o.cean_

click

다양한 채널에서 만나요!

대학내일은 매주 월요일 전국 캠퍼스에 배포되는 주간지입니다.



facebook

57만 독자와 함께 보는 꿀잼 콘텐츠
@UNIVtomorrow



instagram

#소통해요 #선택환영
@univ20



youtube

대학생 폭풍 공감
영상들이 가득!



univ20.com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는
공식 사이트

목차

No.908

2019.11.4~2019.11.10



30
37

SPECIAL

자살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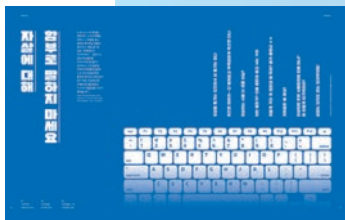
‘죽을 용기로 살지’, ‘무책임하다’ ‘이기적이다’...

누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 앞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

누군가의 죽음을 함부로 얘기하고 판단하지 않기 위해,

자살에 관한 오해와 편견을 짚었다.



콘텐츠팀

팀장
홍승우 sseung@univ.me

매거진

파트장
김신지 summer@univ.me
책임에디터
강혜원 hyewon@univ.me
에디터
서재경 suhjk@univ.me
이시은 sieun@univ.me
인턴 에디터
양유정 orange@univ.me
교정교열
차은선
디자인 팀장
김혜정 kiko@univ.me
디자이너
남미가 miga@univ.me

디지털

파트장
조용재 woongja1@univ.me
책임에디터
백수빈 bin@univ.me
강민상 ninsan@univ.me
에디터
김상구 nine@univ.me
박소희 green@univ.me

디자인

파트장
이승은 lidy@univ.me
책임디자이너
김지현 uujuinn@univ.me
디자이너
김은미 mongmigu@univ.me
정진우 jpung@univ.me

영상

파트장
김효은 hihyo@univ.me
책임에디터
김슬 dew@univ.me
에디터
배다솜 sombang@univ.me
이지애 ja.lee@univ.me
정다혜 dada@univ.me
박한나 hanna@univ.me

브랜드 저널리즘

파트장
김초롱 rong@univ.me
책임에디터
주태환 joo@univ.me
박정욱 wook@univ.me
조아라 ahrajo@univ.me
김수현 soo@univ.me
유희수 hsyu@univ.me
권혜은 hyen@univ.me
에디터
김현욱 kyo@univ.me
정우미 woomi@univ.me
노치원 kingofamonkey@univ.me

IN- DEX

12

PLACE

표지모델 추천!
노잼의 도시 대전에서 찾은
유점 스폿 4

22

CAMPUS LIFE 1

대학 생활
그러데이션 분노 TOP 8

40

THINK

아무나 만나면 망해요

13

OUT CAMPUS

벌써 2020년을 준비하는
너를 위한 대외활동 BEST 4

24

CAMPUS LIFE 2

어쩌다 발견한
대학 생활

42

GALAXY #NOFILTER CHALLENGE

#솔직한너의모습을보여줘
#노필터챌린지

14

PICK UP

에디터들이 고심 끝에 고른
이주의 추천템

26

VIRTUAL WORLD

가상 세계관 속 최악의
캠퍼스는?

16

ADVICE

라떼들이 끈대 소리 들어서
억울했던 순간

28

BROKEN LOVE

사랑꾼인 줄 알았던
여자친구, 전부 SNS에
자랑하기 위한 가짜였다

19

DAENGNEAGRAM

나는 어떤 유형의
통학러?

38

20'S VOICE

우리는 각자의 방에 누워
악몽을 꾸다

발행·편집
김영훈
공동 대표
유영기 김영훈
공동 창업자
유영기 김창배 김영훈
부대표
이태영
이사
김창배 박배길 송태광
고문
박재항

대표번호 02-735-3800
팩스 02-735-0005
배포문의 02-6925-0704
인쇄 프린피아
등록번호 서울다 05909
등록일 1999년 7월 9일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53
마스타저타워 3~7층
대학내일 홈페이지 univ20.com
20대 연구소 홈페이지 www.20slab.org

표지모델 추천! 노잼의 도시 대전에서 찾은 유잼 스폿

대전이 노잼이라고? nope! 대전 토박이 시연씨가 꿀잼 보장하는 장소들.

Editor 서재경



Wayo

스누피 모양의 카레가 시그니처 메뉴인 Wayo에서는 시금치 크림 카레, 비프 토마토 카레, 반반 카레 딱 세 가지 메뉴만을 판매한다. 표지모델의 최애 메뉴는 독특한 맛의 시금치 크림 카레라고. 한정된 수량만 판매해서 늦게 가면 맛을 볼 수 없다는 슬픈 전설아...

Add 대전 중구 목척2길 35



사무실

대전의 힘지로! 대흥동에 얼마 전 오픈한 따끈따끈한 신상 카페. 이름처럼 사무실 콘셉트의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곳이다. 대전 인싸들 사이에서 분위기 맛집으로 급부상 중이라 벌써 웨이팅 있음 주의! 드립 커피와 에이드가 맛있다.

Add 대전 중구 대흥로452번길 3 2F



이응노 미술관

건물 자체가 프랑스 유명 건축가 로랑 보두앵의 작품이라 미술관 안팎으로 볼거리가 많다. 아름다운 외관 덕분에 영화 <부당거래>,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의

촬영지이기도 했다고 한발 수목원

내에 위치해 있어 가을엔 미술관

방문 후 단풍 구경 필수!

Add 대전 서구 둔산대로 157 이응노미술관



NNN

아기자기한 아이템들을 사 모으며 소확행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좋아할 만한 소품샵이다. 세련된 분위기로 꾸며진 숨을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 대흥동 뒷골목 지하에 위치한 의외의 꿀잼 장소!

Add 대전 중구 목척7길 11

주말에 뭐하지 고민될 땐?
네이버 뭐하지판
#요즘 핫플 #인생샷명소 #TV맛집
매일 새로운 놀거리를 받아보세요!



벌써 2020년을 준비하는 너를 위한 대외활동 BEST 4

2020년은 열심히 살 거니까~

Editor 캐미언니 Illustrator 이채린

~11.6



제14기 하나금융그룹 SMART 홍보대사

하나금융그룹에서 SMART 홍보대사를 모집한다. 3개월 동안 브랜드 홍보 및 지정 미션을 수행하는 활동이야. 활동 시 수료자 전원 해외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인턴 또는 신입 공채 시 우대 혜택을 준다. 활동 우수자는 서류 전형 면제도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 지원해봐!

주최 하나금융그룹 접수 기간 ~ 11월 6일(수)

태그 #우수활동팀 장학금지급

~11.6



2019 겨울방학 온드림스쿨 다빈치교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에서 온드림스쿨 다빈치교실을 모집한다. 겨울방학 중 4박 5일 동안 전국 농·산·어촌에서 상주하며 교육 기부를 수행하는 활동이야. 활동 시 팀별 활동 예산을 최대 180만원까지 지급하고, 우수 활동 수기로 선정되면 원고료도 지급한다고 하니, 지금 지원해봐!

주최 현대차 정몽구 재단 접수 기간 ~ 11월 6일(수)

태그 #자원봉사 #40시간인증

~11.17



해양수산부 대학생 기자단 해리포터 8기

해양수산부에서 해리포터 8기를 모집한다. 1년 동안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활동이야. 영상, 사진, 원고 등에 재능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활동 시 원고료와 활동비가 지급되고, 해외 탐방 기회까지 부여된다고 하니, 지금 지원해봐!

주최 해양수산부 접수 기간 ~ 11월 17일(일)

태그 #우수기자 #장관상 및 특별부상

~11.26



마인드업캠프 대학생 서포터즈 12기

(주)위엠유에서 서포터즈 12기를 모집한다. 6박 7일 동안 청소년 캠프 인솔 및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이야. 전국 대학(원)생 및 취준생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활동 시 교통비를 지급하고, 우수 서포터즈에게 장학금 50만원도 지급한다고 하니, 지금 지원해봐!

주최 (주)위엠유 접수 기간 ~ 11월 26일(화)

태그 #휴먼자 #지원불가

Weekly Pick up

에디터들이 고심 끝에 고른 이주의 추천템



ice creme shop . 솔리드웍스

친해지고픈 후배와 약속을 잡았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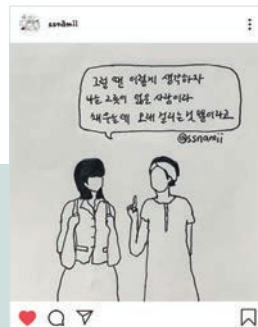
대학에 입학한 후 선배와 첫 밥약을 잡았을 때였다. “드디어 선배랑 밥 먹는다!”며 머칠을 주변에 자랑했건만. 긴장을 많이 해서인지 밥을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도 모른 채 식사가 끝나버렸다. 아쉬워하고 있는데, 선배는 후식을 먹자며 한 젤라또 가게에 나를 데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어색함은 완전히 누그러졌다. 소금 맛, 갯잎 맛, 인터스텔라 맛... 아이스크림을 워낙 좋아해 안 먹어본 맛이 없는데, 처음 맛보는 특이한 맛에 신이 나 뭉 먹을까 고민하며 말문이 트인 거다. 조용하던 후배가 젤라또를 보고 입담이 터진 모습을 보고 선배는 얼마나 웃겼을까. 이제는 사망년을 코앞에 둔 지금, 친해지고 싶은 후배가 생기면 꼭 이 가게에 데려간다. 신기한 맛만으로도 이야깃거리가 충분하니 말이다. **김경민**



book . 오늘도 홍차

하루의 끝을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차와 맥주 마시는 걸 즐기고, 학생 에디터로서의 첫 원고에 나는 이렇게 적었다. 스무 살, 처음 찻집을 방문했던 게 차에 입문하는 계기가 됐다. 찻집은 익히 다니던 카페와는 느낌부터가 확연히 다르다(고 나는 느꼈다). 책 『오늘은 홍차』의 주인공 홍 마담의 홍차 가게도 그런 느낌일까. 만화 속 가게에 처음 들어선 사람들도 나와 비슷했을 것이다. 다들 흘린 듯 들어와 홍 마담이 추천해준 차를 마시고, 각자가 담이온 사연을 풀었다. 누구라도 홍 마담의 센스와 예열된 예쁜 다기들, 그리고 향긋한 차 앞에선 입을 열게 될 테니까. 홍차 만화답게 홍차에 대한 소소한 지식들도 홍 마담의 입담을 통해 등장한다. 아가자기[한 그림과 흥미로운 차 이야기에 빠져 있다 보면 어느새 뜨끈한 차를 끓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는 모습도 함께. **김민지**



instagram . @ssnamii

잠들기 전 딱 하나의 콘텐츠만 볼 수 있다면

하루 24시간 중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가 제일 바쁘다. 밀린 카톡에 답장도 해야 하고 업데이트 된 웹툰과 유튜브도 봐야 된다. 새벽까지 SNS 세상에서 헤엄치다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로 잠들면, 다음 날 쾅한 눈을 먼지 못한다. 하루 온종일 피곤한 건 물론이고...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을 고쳐보기로 했다. 대신 딱 콘텐츠 하나만 보고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걸로! 그래서 왠지 더 잘 골라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고른 게 바로 'ssnamii'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이다. 이 계정엔 '농도 짙은 그림일기'라는 제목으로 꾸준히 게시물이 올라오는데... 이 작가님, 오늘 내가 왜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다 아시는 것만 같다. 마음이 쿵 하고, 눈물이 핑 돈다. 한 장의 콘텐츠로 농도 짙은 위로를 받고 나면, 나는 기꺼이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잠들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계정 나만 알고 싶었는데, 오늘 여러분이랑 공유할게요. **양유정**



멋있는 어른으로 늙고 싶을 때

틀딱, 끈대... '나이'들에 대한 비하의 표현이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는 요즘, 마음속 한 칸에 멋있게 늙고 싶다는 꿈을 안고 사는 나는 종종 서글퍼진다. 나이가 들면 나 역시 그런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싫어서. 물론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으로 젊은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 답답한 어른들도 분명 있을 거다. 하지만 그들과 반대로 멋지게 사는 어른들도 많을 텐데. 그런 어른들은 어디에 있을까 궁금해하던 차에 유튜브에서 <Hongz pop> 채널을 발견했다. 악뮤부터 폴 김까지,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커버해 부르는 '중년'의 유튜버가 운영하는 채널인데 노래도 좋지만 무엇보다 나에게 희망을 준다. 10~20대 구독자들에게 '감동이다' '멋지다'를 연발하게 만드는 멋있는 어른도 분명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사재경**



cafe . paw union

낮선 댕댕이와 만나는 행운이 필요할 때

선택지가 많으면 오히려 선택을 못 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나다. 근사한 카페가 세 발자국 마다 하나씩 나오는 동네에 가면 한참을 헤매곤 한다. 그럴 때 나를 잘 아는 친구들은 "아무 데나 들어 가자"며 보채지 않는다. 대신 "좀 더 둘러볼까?"라고 말해 준다(고마워 애들아). 고민 끝에 선택된 가게들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주로 새로 생긴 카페이거나, 커다란 창이 있거나, 아니면 가게에 귀여운 동물이 있는 곳이다. 지난 주말 연남동에 갔을 때 들른 카페 'PAW UNION'은 내가 좋아하는 카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곳이었다. 해시태그 검색을 하다가 날찍한 테이بل 간격을 보고 마음이 동해 찾아갔는데, 여러모로 기대 이상이였다. 맞다, 그곳에서 천사 같은 댕댕이를 만나서 하는 말이다. 알고 보니 반려동물 디자인 브랜드에서 낸 쇼룸 겸 애견 동반 카페라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댕댕 러버들이여. 연남동에 간다면 꼭 한 번 둘러보시라. **김혜원**



book .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필요 없는 감정을 버리고 싶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다가도, 문득 이유 없이 서러워질 때가 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허무하고 불안할 때. 나 자체로 이해받고 싶은데 그 대상이 친구도, 애인도 아닐 때. 갑자기 억눌렀던 뾰족한 감정이 올라와 눈물샘을 콕콕 찌른다. 그럼 우린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로는 행복해질 수 없는 걸까. 살아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거라니. 골치 아프다. 책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에서는 앞선 내 생각처럼,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할 법한 고민을 이야기한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욕심이 많아 버거울 때, 한 게 없어 허무할 때와 같은 주제로. 사실... 책 다 읽었다고 누군가의 걱정이 마법처럼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필요 없는 감정을 쓰레기통에 버릴 정도는 된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뭐?

이사는

라떼들이 끈대 소리 들어서 억울했던 순간

이런 것까지 끈대라고? 아무데나 끈대 프레임 씌우면 속이 시원하냐

Editor 이시은 Illustrator 정진우

짜랄 답장 해주라!



01

단톡방 봤으면 [대답]하자는 게 끈대?

과대했을 때 억울하게 끈대 소리 많이 들었던 거 같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야 하니까 단톡방에서 뭘 묻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다그치게 되더라고. 다들 투표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해서 의견 취합하는 게 힘들더라. 행사 참석 여부 정도는 대답해줄 수 있는 건데도... 그래서 결국 봤으면 대답 한 번만 해달라고, 이모티콘 하나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끈대라고 뒷담화를 했더라고. 권위적인 말투로 한 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기분 나빴어. 무책임하게 대답 안 한 본인들 잘못 아닐까? **라떼1. 원세대 15 K**

너 정말 노우 맵시^^



02

팀플 [일 분배]시키면 다 끈대?

복학하고 돌아갔더니 팀플 조장은 다 나 시키더라. 학번도 내가 높고, 모두가 원하니 알겠다고 했지. 그래서 ppt는 누가, 발표는 누가... 이런 식으로 일을 분배해줬어. 솔직히 내가 다들 하기 싫어하는 거 하겠다고 마지막에 고른다고까지 했으면 배려 많이 한 거 아니냐? 근데 또 뒷말이 나오더라. 내가 6 하고 4 시킨 것도 끈대라니, 웃음만 나왔어. 내 일을 전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야. 같이하는 과제에서 일 분배한 것을 시켰다고 받아들이다니. 후배 학번 동기들에게 내가 끈대처럼 시켰다고 말하고 다닐지도 모르지 뭐. **라떼2. 한양대 15 K**

응 아니에요~



03

초면에 [존댓말] 요구한 게 끈대?

조별과제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어. 학번을 묻더니 같은 학번이라는 걸 알고 다짜고짜 "아 그래? 반말한다?"라고 하더라고. 거기다 대고 싫다고 하기도 그래서 그냥 "네? 아... 저는 존댓말 할게요"라고 했더니 표정이 확 굳더라. 그러고는 같은 조 동기한테 반말할 수도 있지 왜 저러냐고, 조선 시대에서 왔냐고 했다. 난 솔직히 초면에 갑자기 반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차라리 "동기니까 편하게 반말해도 되지?"라는 식으로 물었으면 나도 그러라고 했을 텐데, 통보하는 게 불쾌했거든. 최소한의 예의를 요구하는 게 어째서 끈대 소리 들을 일일까? **라떼3. 성균관대 13 H**

내가 했던

지각 지적 그렇게 싫었나?

학교 방송국에서 일했을 때였어. 방송국은 알다시피 1분 1초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근데 후배 한 명이 자꾸 지각을 하더라고. 그 몇 초 때문에 방송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라고? 한번 불려서 조금만 일찍 다닐 수 없겠냐고 했는데... 뒤에서 곧대라고 욕했다더라. 지각 지적한 게 그렇게 싫었나? 이런 것까지 곧대라고 하니가 뭘 말을 못 하겠더라고. **리페4. 13 익명**

답정너한테

조언 해줬다가 곧대 됨

후배가 먼저 복수전공 어떠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 난 현실적으로 대답해줬지. 정말 부지런해져야 한다고. 그래서 평소보다 두 배로 노력하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잔소리하면 곧대라고 하더라고. 아니... 내가 하라 마라를 부모님처럼 정해준 것도 아니고, 물어본 말에 싫은 소리 하나 했다고 곧대 취급 받았던 게 억울해. 네가 답정너였거든! **리페6. 상명대 14 J**

교수님 앞에서

예의 지켜달라고 하는 것도 안 되니

한번은 어떤 정신 나간 후배가 교수님 지나가는데 담배피우면서 인사를 하는 거야. 그것도 입에 물고... 되게 건방진 포즈였어. 아무리 편한 전공 교수님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냐고 했더니 “선배 틀니 압수”라면서 나도 똑같은 곧대라고 하더라고. 아... 요즘은 예의 없는 것도 쿨한 건가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었어. **리페8. 서울과기대 14 P**

먼저

샌드위치 사다 준다고 해놓고 곧대?

후배 한 명이랑 교양 수업을 같이 들었어. 애매한 점심시간일 때라 가끔 밥도 같이 먹곤 했지. 근데 어느 날 내가 점심 안 먹었다고 하니가 “수업 갈 때 샌드위치 사 갈게요”라고 하는 거야. 나 챙겨주는 게 정말 고마웠지. 근데 나중에 다른 후배들이 나보고 “선배가 심부름시켰다면서요? 곧대~”라는 거야.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심으로 말한 거더라. **리페5. 세종대 14 S**

후배

연애 고민 들어줘도 난리

후배가 남자친구 욕을 엄청 하는 거야. 누가 들어도 쓰레기라서 제발 그만 만나라고, 별로 좋은 친구 아닌 것 같다고 설득했지. 본인도 알고 있는데 못 헤어지겠대. 그래서 일부러 더 세게 말해줬어. 근데 개가 말하길 자기한테는 그래도 되는데 남한테 그런 간섭하면 곧대 소리 듣는다고 조심하라고 하더라. 연애 고민 들어주는 것도 곧대인 건가...? **리페7. 숙명여대 13 L**

과방

깨끗하게 쓰라고 공지도 못 하나

얼마 전에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 누가 과방에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를 데려왔는데 간식도 안 치우고, 심지어 소변도 제대로 안 닦아서 냄새가 다 나더라고. 그걸 과대한테 얘기했지. 과방 깨끗하게 쓰자는 공지 좀 해달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댕댕이 주인이 나보다 선배였던 거야. 나보고 유난 떠는 어린 곧대라더라! 하하하. **리페9. 대구대 17 S**

Find cover model



대학내일 표지모델

신청 방법!

covermodel@univ.me로

연락처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사진을 보내주세요!

필요한 사진은?

다양한 구도에서 촬영한
일상 사진 및 자신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사진 얼마든지!

어떤 일을 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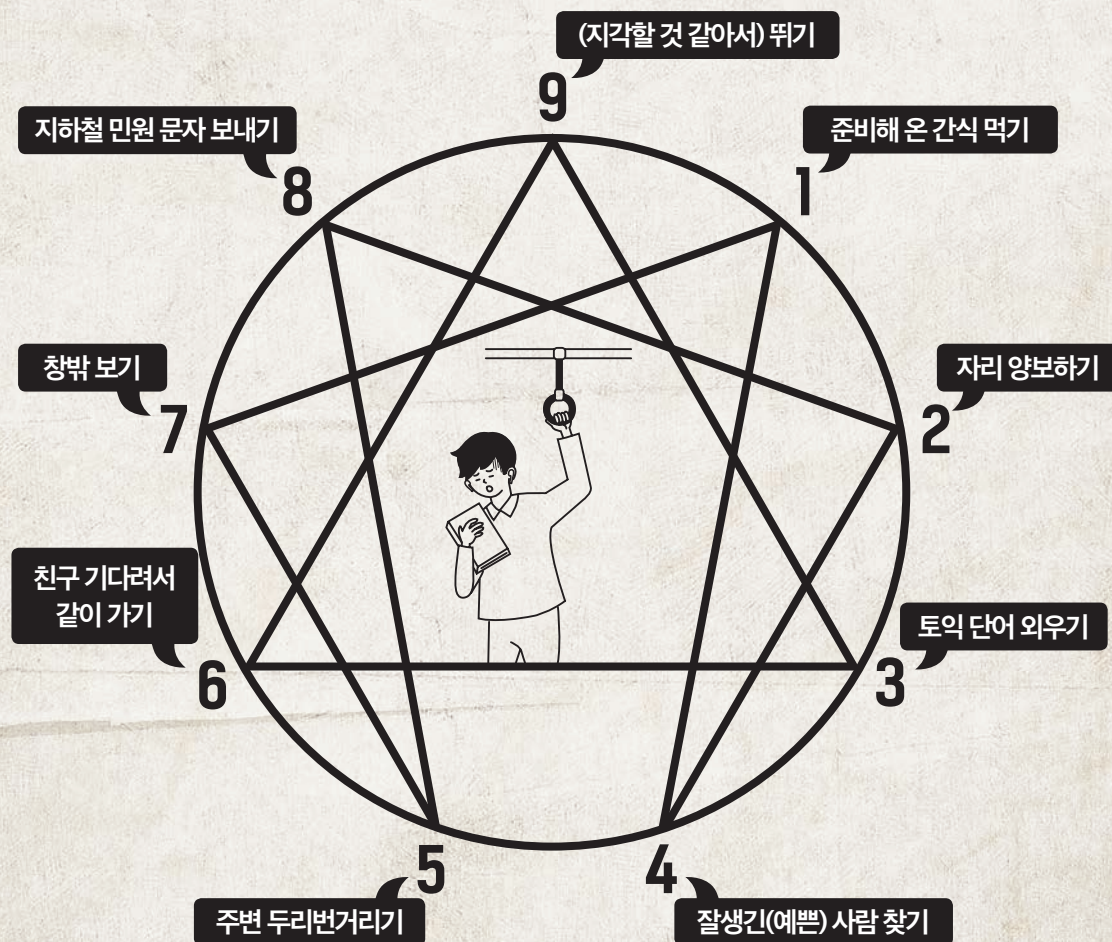
- ① 대학내일 표지와 내지를
장식하는 화보 촬영 진행
- ② 미니 인터뷰

댕니어그램 - 통학할 때 편

1~9번 중 통학하는 길에 가장 자주 하는 행동은?

Editor 서재경 Illustrator 이승은

Daengneagram



결과는 뒷장에 ▶

댕니어그램 해설

이 테스트는 당신이 어떤 유형의 통학러인지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다음 중 본인이 고른 답에 해당하는 유형 해설을 읽어보세요.

공강 천국!
1교시 지옥!



1유형 - 도라에몽형

매사에 완벽한 1유형은 통학 준비를 꼭 부러지게 하는 편. 전날 밤 미리 전공 책, 노트북, 보조 배터리 같은 필수품부터 간단한 간식, 만약을 대비한 우산까지 다 챙겨놓고 잠들. 준비성이 거의 도라에몽 주머니급. 심지어 버스 안에서 들을 플레이리스트까지 정해놓음. 철저한 준비 덕에 통학하는 시간을 누구보다 알차게 보내지만... 그 어깨, 앞으로 80년은 더 써야 하는데... 한두 개쯤 덜 넣고 가볍게 다니는 연습도 해보시길!

2유형 - 스탠딩 콘서트형

자비로움이 부쳐 수준인 2유형의 통학 시간은 1시간짜리 스탠딩 콘서트라고 보면 됨. 바로 앞에 자리가 나도 절대 앉지 않고 매의 눈으로 주변 스캔함. 노인, 임산부, 어린이... 이 중 누구라도 눈에 띄면 당장에 자리를 양보함. 어쩌다 운이 좋아 자리에 앉아도 언제 노인, 임산부, 어린이가 나타날지 몰라 좌불안석하는 편. 남을 돕고 싶은 그 마음 높이 사지만, 밤새워 시험공부한 날엔 인간적으로 좀 앉아서 가도 됨! 자리 양보에 대한 강박은 갖지 말기~

3유형 - 단어 암기형



3유형은 절대 시간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음. 이들은 주로 통학 시간을 학문에 할애함. 지하철, 버스 안에서 게임만 하는 사람 절대 이해 못 하는 편. 주로 토익 단어를 암기하며, 하다못해 인강이라도 들음. 이따금씩 책을 읽는 문학파도 있음. 러시아워라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아무것도 못 할 때 제일 괴로워함. 가끔씩은 멍도 좀 때리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다는 학계의 정설이 있음. 너무 붐빌 땐 마음을 비우고 잠시 쉬는 걸 추천!

4유형 - 금사빠형

통학 시간 중에 자꾸 사랑에 빠져서 친구들한테 "야, 지금 내 앞자리에 잘생긴(예쁜) 사람 있어"라고 톡 보내는 애들 있음. 바로 4유형임. 이들은 예술가적 기질을 타고나 상상력도 풍부한데, 학교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상상 속에서 금사빠 대상과 물디브로 신혼여행까지 떠남. 하지만 내향적이기도 해서 이 사랑이 실현될 확률은 극히 희박함. 정말 마음에 든다면 가끔은 용기를 내보는 것도 좋을 듯. 단, No means no는 명심할 것!

5유형 - 설록 흠즈형

5유형은 탐구력이 설록 흠즈 뺏치는 편. 함께 통학하는 친구에게 끊임없이 “야, 방금 봤어?”를 남발하며 좀 전에 지나간 사람에 대한 통찰을 들려줌. 덕분에 5유형과 함께 통학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까지 인간 군상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아도) 알 수 있음. 훌륭한 관찰력이 일상에 도움이 될 때가 더 많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조금 주의할 것. 때때로 그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불편해하는 승객도 있을 수 있으므로!

6유형 - 친구 따라 지각형

사람을 좋아하고 헌신적인 6유형은 가까이 사는 친구와 함께 통학할 확률이 높음. 부지런한 친구와 통학을 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음. 그러나 게으른 친구와 통학을 하게 되면 6유형의 출석 점수는 그날부터 망하는 거임. 워낙 사람에 대한 믿음이 강해서 친구가 항상 늦게 나와도 ‘내일은 일찍 나오겠지...’ 또 믿어줌. 이 헛된 희망 끝에 남은 건 재수강뿐일 수 있음. 괜히 덩달아 지각하지 말고, 친구를 놓아야(?) 할 땐 과감히 놓을 줄도 알아야 함.

7유형 - 경로 재탐색형

선천적 모험가인 7유형들에게 공통적인 경험이 있을 것임. 학교 가다 말고 다른 길로 샌 경험^^ 이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시기는 봄, 가을 등 날씨가 화창할 때임. 창밖 보면서 학교 가다가 ‘날씨 너무 좋대 놀러 갈까?’라며 갑자기 고장 난 내비게이션처럼 경로를 재탐색해버림. 대학 다닐 땐 통학 길에 자체 휴강해도 큰일이 생기진 않지만, 나중에 직장인 돼서도 경로 재탐색하면 큰일 남.

8유형 - 민원형

가끔 지하철에서 “승객의 요청으로 인해 냉(난)방을 가동합니다”라는 식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올 때가 있음. 이런 건 대부분 8유형들이 민원 문자 보낸 거라고 보면 됨. 8유형은 불편한 것을 참고 넘기지 않음. 불편함뿐 아니라 불의도 참지 않아서 대중교통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들을 나서서 해결함. 간혹 변태, 소매치기 등을 발견하면 피해자 대신 싸워주기도.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지만 위험한 일은 직접 나서지 말고 지하철경찰대에게 맡길 것!

9유형 - 운 나쁘면 지각형

유난히 낙천적인 9유형은 자신에게 불행이 닥칠 리 없다고 믿는 경향이 강함. 때문에 학교 갈 때 절대 일찍 출발하는 법이 없음.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걸리는 시간, 열차 도착 시간, 출석 부르는 시간까지 감안해서 딱 맞춰 출발하는 편. 그렇다 보니 열차가 앞 차와의 간격을 조정하기 위해 1분만 정차해도 지각 확정됨... 열차에서 내리면 뛰어가느라 1교시 전부터 기운 다 뺏. 딱 5분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분만 일찍 나오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 주의 사항 ※

댕니어그램은
성격 유형 이론의 한 종류인 에니어그램을
대학 생활에 적용하여
대학내일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재미로만 보세요.
(짱긔)

대학 생활 그레데이션 분노 TOP 8

좋게 좋게 생각하니까 또 뻑치네

Campus Editor 이은비 | Director 강민상 | Designer 김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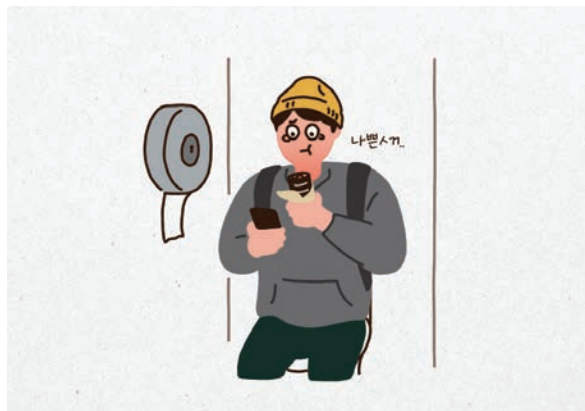
그래 차라리 내가 조장 하는 게 낫지... 괜히 신입생이나 프리라이더가
조장 하면 다 같이 점수도 못 받고 답답하기만 할 듯ㅠㅠ
불안해하면서 남한테 맡기는 거보다 내가 하는 게 편하긴 뭐가 편해
남이 하는 게 제일 편한데; 막학기에 조장이 말이 되냐
야, 신입생 대X리 박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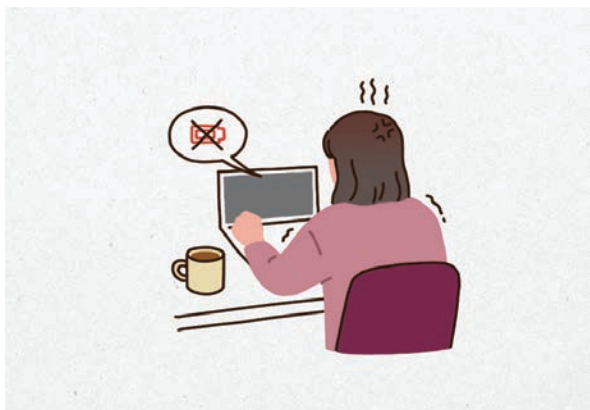
오늘마저 지각했으면 진짜 씨플 확정이었는데
휴강 떠서 천만다행이다 ㅠㅠ 남은 시간에 여유롭게
커피나 한잔 마시면서 생각해보니까 시바 학교까지
통학만 2시간인데 좀 미리 말해주지 교수님 카톡 문자 못 하시는지;
고조선에서 오셨나 아 갑자기 개뻑치네!



본가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건 진짜 축복임ㅠ
자취하면 보증금에 월세에 나가는 돈이 얼마야;
솔직히 환승 세 번에 셔틀 한 번만 타면 되고 시간도 왕복 3시간이면
나쁘지 않지. 맞는 소리야 처맞는 소리. 1호선 냄새에 처맞고
2호선 백팩에 처맞는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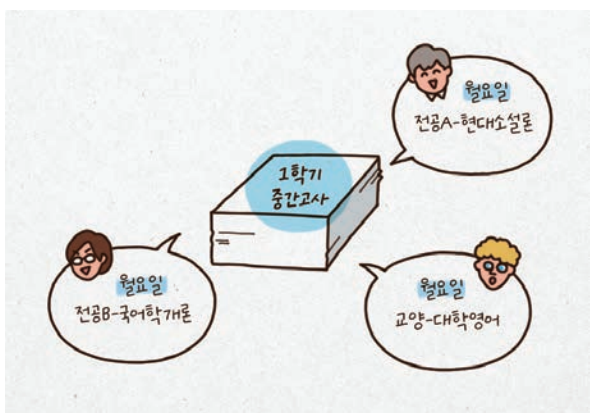
오늘 친구가 점심 약속 파투 났는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밥이야 뭐 다음에 약속 다시 잡아서 먹으면 되고!
아쉽지만 나는 그냥 혼자 화장실에서 지एस 도시락에 킨사이다
조지면 되니까 개X기야 너도 조져질 줄 알라고.



노트북 들고 올라 말까 집에서 고민했는데
가져오길 잘 했다ㅠ
오늘 무조건 도서관에서 과제 다 끝내고 집 간다;
잠시만 충전하는 거 깜빡했다 아 배터리 없네...
충전기도 없네... 강 나새끼 생각이 없네.



팀플할 때 어떻게 사람마다 시간을 하나하나
다 맞춰ㅜㅜ 서로 배려하면서 시간 조율하는 거지.
6명 시간 다 맞추려면 양보가 우선인데 첫 회의를 이번 주
금요일에 모이더라고 나 그날 공강이거든. 아니 공강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아 개빡치네.



하... 중간고사 2주 남았으니 지금부터 열공 때린다.
나도 이제 4학년, 절대 신입생같이 시험 때 닥쳐서
밤새우는 바보 같은 짓 안 한다. 월요일에 전공 3개 보니까
첫 과목부터 시작하는데 교수님은 우리가 자기 수업밖에 안 듣는 줄 아나
자기들끼리 날짜 맞추나봐, 개싫어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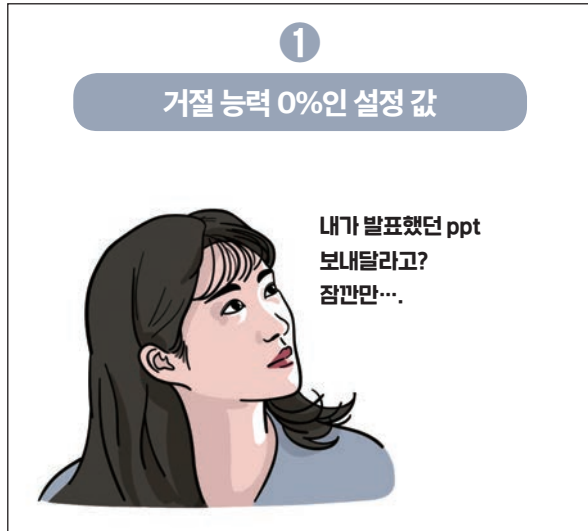
그래도 우리가 사귄 땐 행복했잖아.
나쁘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뭐 같은 과 cc였는데 어색하게 지내봤자
좋을 게 뭐 있냐. 만약 전공 수업 때 만나면, 바로 주먹다짐이야 시바.
진돗개 경보 올리는 거라고 이 새X야.
여기가 판문점이야 뭐야 개X끼가. 아, 생각하니까 개빡치네.

어쩌다 발견한 대학 생활

‘어 하루’ 대학생 ver. 벗어나고픈 지긋지긋한 설정 값, 누가 리셋 좀 해주라!

※ 본 기사는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의 설정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설정 값’은 벗어나고 싶었던 이미지를, ‘스테이지(STAGE)’는 현실을, ‘새도(SHADOW)’는 속마음 상상 속 상황을 의미합니다.

Illustrator 정진우



STAGE

난 거절을 잘 못 함. 한번은 이런 적이 있어. 새 학기가 되고 나서 후배들이 갑자기 나한테 작년 발표 때 쓴 ppt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고. 마치 나한테 맡겨 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근데 막상 거절하려니 입이 안 떨어지네.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치사하고 못된 선배로 보일까 봐 바로 표정 풀고 웃으면서 알겠다고 그랬어. 결국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서 파일 공유해주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다며 캔커피까지 하나씩 손에 쥐어줌^^ 이런 적 한두 번이 아니란 게 더 문제야. 동기, 선배 들까지 대출 부탁하질 않나. 팀플에서도 귀찮은 건 다 내 몫. 누가 나한테 거절 못 하는 설정 값 먹었냐(ㅠㅠ) 제발 없애줬으면.

SHADOW

솔직히 나 매번 이렇게 받아치고 싶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걸 도리가 아니지! 내가 뻘 빠지게 모아 만든 소중한 자료인데 이걸 그냥 거저 달라고? 내 입으로 말하기 그렇긴 한데, 이거 해X캠포스에 올리면 부수입으로도 꽤 짭짤할 거거든? 이 치사한 놈들아! 그리고... 순수 창작물인 수업 자료까지 달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양심이 있으면 제발 생각 좀.”



STAGE

구린 소리 하는 사람이 교수님이라면 어떡해야 할까. 한 교수님이 자꾸 성차별적 발언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고역이야. 더구나 학과에서 영향력 있는 교수님이라 눈 밖에 나면 졸업 때까지 피곤해지기 십상. 그러니 힘 없는 우리는 헛소리가 시작된다 싶을 땐, 그냥 ‘귀 닫고 동공 풀기’ 스킬 시전 중이지 뭐. 그런데 요즘에는 “인도영화는 여자들이 안 벗어나서 아쉽다” 따위의 말을 해놓고는 “불쾌했다면 취소할게요. 요즘 이런 말 안 되지? 하하!”라며 농담인 척 얼버무리기까지 해. 그때마다 기계적으로 고개 끄덕이거나 입만 웃고 있는 날 발견함. 혐오 발언까지 참아지는 것도 설정 값이라면 제발 벗어나고 싶다.

SHADOW

정식으로 문제 제기 하고 강의 보이콧하고 싶음. 대학에서 배우는 게 고작 혐오 발언 하는 교수 앞에서 웃어주기인 건 너무 화나는 일이잖아. 그러니 숨어 하던 욕들 면전에 대고 다 해줄 거야. 속 시원하게 비속어까지 섞어서! 근데... 생각해보니 잘못된 말에 문제 제기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이걸 상상 속에서만 해야 하지?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슬프다.

CAMPUS
EDITORS

길민지
(역지 미소)
맨날 새도에서 살고 싶다...
우리 존재 파이팅!



유연지
만화 캐릭터도 아닌데
설정 값에 갇혀 사는 모든 대학생,
파이팅!

3

학점의 노예라는 설정 값

1시간 발표요?
50p과제요?



STAGE

수업 첫날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당신도 대학원생이라 바쁘대. 그래서 우리한테 강의 발표를 시키겠다는 거야. 결론이 왜 그렇게 나쵸? 심지어 개인 발표를 한 시간씩이나 시키다니... 수업 날로(?) 먹으려는 느낌이 왔지. 아니나 다를까, 겨우 20분 남짓 코멘트 해주고 끝나더라. 게다가 내가 자료 조사할 때 쳐냈던 시답잖은 정보를 피드백이랍시고 언급하시고, 와중에 수업 시간 때우려고 과제 발표는 엄청 시킴. 그렇게 한 학기 내내 학생들이 진행하는 수업 들음^^ 하지만 학점의 노예인 나... 항의는커녕, 태도 점수 1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기를 썼더라.

SHADOW

새도였으면 이미 교수님한테 한마디 했지. “교수님이 그러고도 교수님이세요? 저도 비싼 돈 내고 학교 다니거든요. 돈 받고 수업하시면 가르치는 게 있으셔야죠. 제 등록금 길바닥에 버리는 한이 있어도 교수님한테 못 주겠습니다. 솔직히 수업 30분 전에 오셔서 겨우 자료 읽고 계신 거 매번 티 나거든요? 언제 적 자료를 읽고 오셔서 얘기하시는 건지?”

4

늘 남의 비위 맞추는 설정 값

선배의 탁월한 안목...
충성충성^^7



STAGE

학점 메우라, 논문 쓰라 바쁜 와중에도 모두가 탐내는 대기업 인턴에 합격했어! 근데 1개월 차, 내 사수가 정말 돌+라는 것 빼곤 배운 게 없다. 부장님에겐 아무 능력 쯤는 대리일지 몰라도, 나한테 넘기기의 대가일 뿐이거든. 더 화가 났던 건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거야. 뭐 물어보더라도 하면 앞에서 그것도 모르냐며 면박 주고, 컨디션 좋지 않을 때는 인사도 안 받아줌. 다른 팀 인턴들은 면담 신청해서 불만 사항도 잘만 말하던데, 난 말도 못 하고 비위만 맞추고 있어. 아직 2개월이나 남아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안면 근육 (^_^)으로 굳히고 사는 중. 원래 직장인 되면 다 이렇게 비위 맞추는 설정 값 있는 거임?

SHADOW

처음엔 그저 ‘뽀아만 취도 감사’였지만, 아무리 인턴이라도 너무나 거 같음. 자소서 한 줄 귀한 건 알지만 그냥 다 읽고 싶어^^ 인턴 수료 직전이라 말은 못 했지만, 신입 사원이 본인 비위 맞춰주는 역할은 아니라는 걸 좀 알았으면 함. 그리고 인턴들 아직 학생이라고 알리지 말길. 뒤에서 본인 선배 욕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내가 입 털면 끝이야

가상 세계관 속 최악의 캠퍼스는?

딱 하나만 골라보자

Editor 박소희 Designer 김지현

좋아하면 알람이 울리는 캠퍼스



-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10m 내 접근하면 알람이 울림
- 좋아하는 사람이 내 알람을 수신 거절할 수 있음
- 4년간 무알람 시 학업 우수자 특별상 지급

어쩌다 발견한 캠퍼스



- 나의 모든 캠퍼스 라이프가 이미 완결 난 웹툰의 내용임
- 오늘 점심 뭐 먹을지 미리 알 수 있는 건 개꿀
- 다만 학점과 연애는 웹툰 내용에 맡겨야 함

CC끼리 붉은 실로 연결되는 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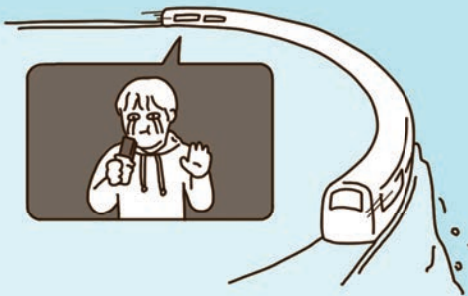
- CC가 되면 서로의 손가락이 붉은 실로 연결됨
- 헤어져도 실은 그대로 연결되어 있음
- 실뜨기 못 함

수강신청 배틀 그라운드 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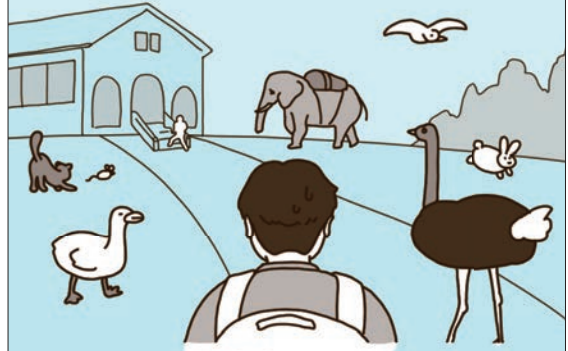
- 인기 강의 여석 1자리를 두고 배틀로얄을 진행
- 장바구니에 담기 버튼을 누른 인원 전원 강제 참여
- 다음 학기에 몇 명 안 보일 수 있음

성적 열차 캠퍼스



- 성적별로 열차 칸을 나누어 분반 수업 진행
- 3학기 연속 F칸 수강 시 퇴학 조치
- F칸 학생들은 학식 이용 불가, 프로틴 바지급

더 랍스터 캠퍼스



- 4년이 지나도록 졸업을 못 하면 동물이 되어버림
- 동물이 된 후엔 4년 동안 들은 강의 내용을 전부 잊음
- 뭐야, 건축학과 왜 동물원 됐어?

사랑꾼인 줄 알았던 여자친구, 전부 SNS에 자랑하기 위한 가짜였다

지난 연애로부터 얻은 교훈을 널리 알려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합니다. 사연 제보는 아래 메일로.

Intern Editor 양유정

요약
01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사랑꾼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다.

요약
02

SNS에 자랑하기 위한 데이트가 반복됐다.

요약
03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 건지,
SNS에 자랑할 사람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

[제보] 나의 실패한 연애담 Ep.10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사랑꾼 여자친구 만나면 무슨 기분 이냐?”라든지, “최소 전생에 나라를 구했네. 복 받은 놈”이라든지, 만나는 친구들마다 입 이 닳도록 내 여자친구 칭찬을 해댄다. 그래서 지금 자랑하려고 이 사연을 제보하느냐 고? 전혀 아니다. 오히려 부럽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맘껏 웃을 수 없는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이야 할지 모르겠다.

언뜻 보기에 내 여자친구는 정말 ‘사랑꾼’이 맞다. 그녀는 나랑 잘 어울리는 옷도 골라주 고, 데이트 코스도 직접 짜으며, 생전 셀카란 것을 찍어본 적 없는 내게 인생샷을 선물해 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전부 SNS에 올리기 위해 계획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머릿속 에서 떠나질 않는다. 나는 외출하기 전에 뭘 입었는지 사진 찍어서 그녀에게 보내야 하 는데, 혹시라도 그녀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반드시 갈아입어야 했다. 데이트 후에 는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야 하는데 ‘#♥’, ‘#사랑해’, ‘#고마워’, ‘#럽스타그램’ 등 주 요 해시태그를 포함하고, 그녀를 게시물에 태그한 후에 관찮은지 컨펌까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사진 찍고 SNS에 자랑하기 위한 데이트가 매번 반복된다.

원래 연애하면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은 거니까 좋게 생각해보려고도 했다. 근데 이젠 정 도가 지나치다. 어느 날은 인형 놀이 하듯 그녀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혀놓고선, ‘너무 멋 있다’라는 말과 함께 SNS에 사진을 찍어 올렸다. “누가 사랑꾼 아니랄까봐~!”라는 댓글을 읽으면서 그녀는 무척 행복해했지만, 난 왠지 이용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결정적으로 최 근 그녀의 친구들과 인사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일부러 친구들 들으라는 듯이 사랑한다 고 하는 게 아닌가. 평소에는 잘 해주지 않는 말인데... 그날 여자친구의 SNS에는 ‘우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랑한단 말을 주고받는 커플’이라는 거짓된 내용의 글까지 올라왔다.

아젠 그녀가 사랑하는 것이 ‘나’인지, ‘남자친구 역할을 하는 남자’인지 헷갈릴 정도다. 이러 려게 생각이 많은 와중에 좀 전에 그녀에게 온 카톡이 또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



오빠, 내일 꽃 좀 선물해줘.

요즘 인스타그램에 올릴 게 너무 없어~

내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걸까?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이 연 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못된 걸지도 모르겠다.

이 콘텐츠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당신의 실패한 연애담을 들려주세요. orange@univ.me



넌리 공유하는 연애 오답 노트

애인은
엑세서리가
아니야



데이트 중에 사진 찍고 보정하고 SNS에 올리는 데 시간을 다 쏟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눈 마주 치며 대화하는 시간은 항상 부족했어. 그런데도 여자친구는 부족한 대화보다 SNS에 올릴 게 시물에 더 갈증을 느끼는 것 같더라. 사연을 제 보하면서 보니까 그동안 나는 그녀의 사랑꾼 이미지를 위한 엑세서리일 뿐이었던 것 같아. 언제든 더 화려한 엑세서리가 생기면 바꿔버리는. 그 전에 내가 먼저 그만두고 싶어.

차라리 솔로인 친구들이 부러운 제보자

연애는
당사자끼리
하는 거야



행복했던 데이트를 SNS에 기록하고 자랑하고 싶은 심리는 이해가 가. 근데 제보자의 여자친구처럼 SNS에 보여주기 위한 데이트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진짜 행복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당장은 SNS에 달리는 댓글 보면서 행복하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그게 아니란 걸 금방 깨닫게 될 거야. 연애는 돌이키는 거니까 남한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집착하지 말자. **SNS에 자랑 안하는 진국커플N**

말로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하면서 길거리에서 파는 저렴한 귀걸이조차 안 사 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난 적 있어. 용돈이 모자라서 그럴겠지 싶다가도, '사랑하면 막 퍼주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꾸 서운했던 것 같아. 엑세서리 계시물에 나 태그하면서 사 줄 것처럼 맨날 댓글 달더라. 어차피 안 사 줄 거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그 사람의 말이 다 거짓말처럼 들려서 결국 헤어졌어.

나는 너한테 쓰는 돈 하나도 안아끼웠던K



말로만 사랑꾼
행세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

Editor's Comment

애인을 만난 거지,

SNS에 인증할 킬링을

산 게 아니에요.

SNS 속에서 말고, 현실에서

행복한 사랑을 하세요.

자살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누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그 죽음을 놓고 함부로 얘기하는 말들이 쏟아진다. '죽을 용기로 살지', '무책임하다', '이기적이다'... 일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비극이지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고 판단하지 않기 위해, 자살에 관한 오해와 편견을 짚었다. 누구보다 힘들었을 고인의 명복을 빈다.

Editor 서재경 Intern Editor 양유정
Advisor 정신 건강 의학과 전문의 김지용,
중앙자살예방센터,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01
자살에 관한
오해와 편견 Q&A

02
자살 충동을
환기하는 방법

03
자살 충동을 느끼는
친구를 돕는 방법

자살할 용기는 있으면서 살 용기는 없다

죽으면 편하지~ 다 벌여놓고 무책임하게 죽으면 다냐

자살하는 사람 다 관종 아님?

지만 힘든가? 다들 힘든데 참고 사는 거지

저렇게 기진 게 많은데 왜 죽어? 배가 불렀네 ㅍㅍ

가족들은 뭐 했대?

자살하면 주변 사람들을한테 민폐 아냐?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살려는 의지도 없는 이기박약들!

※ 위 글은 자살 사건 기사에 달았던 실제 댓글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 자살에 관한 오해와 편견 Q&A

자살에 관한 오해와 편견이 담긴 말들을 토대로 정신과 전문의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습니다.

↳ 자기 손으로 죽음을 선택하다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니까 자살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고를 통해 자살을 '선택'했다고 보기 힘들어요. 자살하는 사람들 중 90%가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우울증의 주요 증상 중 하나가 '죽음'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원하지 않는데도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는 거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힘든 것보다 앞으로 더 살아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으니깐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선택지라기보단 '유일한 출구'처럼 느껴지는 거죠.

↳ 살려는 의지가 부족한 거지

자살 기사를 접하면 흔히들 '죽을 용기로 살지'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자살은 용기나 의지의 문제로 보기 어려워요. '자살 충동'을 벗어나기 위해 의지가 필요한 건 맞지만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그분들은 이미 살려는 노력을 엄청 많이 한 분들이라는 거예요.故 설리씨의 경우만 봐도 그래요. 그분이 삶에 대한 용기나 의지를 갖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 방송도 꾸준히 출연하시고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했던 사람에게 '네 의지가 부족한 거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큰 상처가 돼요.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 치료 같은 환경적 지지가 더더욱 필요한 거고요.

↳ 주위 사람들 생각은 안 하고...이기적이에요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게 주변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죽기 직전까지도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 봐 힘들다는 말도 못 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와 상담하는 과정에서든 '어차피 나는 나아지지도 않을 텐데, 괜히 선생님 힘들게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환자들도 계실 정도예요. 기본적으로 남 탓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내 탓하는, 양심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심리적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살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위하느라 자살을 결심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몰라서 죽은 거 아냐?

유명인이 자살을 하면 저런 외모, 능력, 배경이 있는데 대체 왜 자살을 했을까, 하는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울증에 걸리면 인지 왜곡이 생겨요. 내 상황을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땐 부러울 만한 조건을 가졌음에도 그분들은 자신만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하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과 사고 회로가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자살 충동에서 회복된 후 "그때는 내가 가진 게 많다는 말도 다 나를 살리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게 놀랍고 무섭다"라고 말씀하세요.

↳ 자살하려는 사람은 정말 죽고 싶은 거겠지

작년에 작고하신 임세원 교수님이 쓰신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저희 병원에도 이 책을 비치해두었는데, 환자분들이 읽고 많이 공감하시더라고요. 사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다수의 환자들은 죽기 직전까지도 살고 싶어 하세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살 시도 직후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고 해요. 자에게 상담을 받는 분들도 자살 충동을 느끼긴 하지만, 사실은 죽고 싶지 않은 마음도 동시에 있으니까 병원을 찾아오신 거죠. 다만,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 땐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죽음밖에는 길이 없다고 확신하게 되어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 자기보다 힘든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알았으면 안 죽었을 텐데

사람의 불행은 불행으로밖에 위로할 수 없다는 말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앞서 말했듯, 이미 인지 왜곡이 시작된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힘들다' '다른 사람은 너보다 더 힘들다'라는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거든요. 사실 죽고 싶다는 얘길 털어놓을 때, 위로랍시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말 위험해요. '네가 뭐가 힘드냐?' '나는 네가 부럽다'라는 말을 하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 '역시 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더욱 단절되는 느낌을 받게 되고, 아예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주변인 입장에서 최대한 열심히 들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네가 많이 힘들구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도 좋다' 정도의 공감과 지지만 표현해주고요.

↳ 자살 시도는 솔직히 관중 같아

물론 관심 받고 싶어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럴 거라고 일반화해서 생각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가령 부모님과 관계에서 생기는 힘든 감정 때문에 자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관심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힘들다는 걸 부모님께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가 자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일이지. 그러니 이런 친구들에게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래?'라고 비난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 방법밖에 없다고 느낄 정도로 힘들었구나'라고 이해해주고, 다른 방식의 표현법을 알려줘야 해요.

↳ 자살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상생활을 잘 하다가도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고기능성 우울증을 가진 환자들은 사회생활도 잘 하고, 인간관계도 잘 맺고, 많은 일에서 성취도 이루는데 급작스레 자살을 하기도 해요. 주변 사람들 앞에선 가면을 쓰고 최선을 다해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뿐 아니라 치료진도 그들의 자살을 쉽게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계획만 하다가 자살을 실행에 옮기거나, 충동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거죠. 이런 분들이 술을 마시면 억제력이 떨어져서 쉽게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어 위험해요. 평소의 모습만 보고서는 자살을 예측하기 힘들습니다.



ADVISOR

김지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회원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정회원

팟캐스트, 유튜브 <뇌부자들>

MBC 북팟캐스트 <서담서담>

SBS, 한겨레 칼럼니스트

『어쩐지 도망치고 싶더라!』 공동 저자

↳ 우울증은 타고나는 거 아냐?

어느 정도 유전적인 요인도 있기는
해요. 사람들의 뇌에 세로토닌 합성을
만들어내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은 자살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유전적으로 기질을 타고났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자살로 이어지는 건 절대
아니예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죽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물론
사회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좋겠죠.

↳ 자살은 막을 수가 없다던데

자살 충동을 느꼈더라도 회복되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꼽자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살
충동에 대해 털어놓았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이걸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는 대학생들에겐 교내 상담센터를
가장 추천해요.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아직도 상담 기록이 남아서
취업에 불리한 거 아니냐는 오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자살 유가족은 가해자나 다름없지, 뭐

자살 사건 직후 '가족들은 뭐 했냐?'라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유가족분들
스스로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요. 여러
매체에선 자살 예방을 강조하기 위해
'자살은 미리 알아챌 수 있다' '자살 전에
신호를 보낸다'고도 얘기하는데, 일부분
맞는 말이지만 이런 말들이 오히려
유가족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내
무관심, 실수로 죽은 거야'라고요. 하지만
의료진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자살 고위험군이어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가 의료진의 감시 중에도 찰나의
틈을 노려 자살을 시도하기도 해요.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문가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 가족들에겐 더욱 그럴 거예요.
실사 자살을 막지 못했더라도 지나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으셨으면 해요.

↳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결국 자살 시도 하는 듯

당연히 모든 우울증 환자가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우울증의 증상으로 자살
충동이 자주 동반되기는 해요.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징후가 있을 때 전문가를
찾아야 할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가끔 우울하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걸 '우울감'이라고 하죠. '우울증'은 이 우울감이 2주 이상 매일같이 하루의 대부분
동안 지속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 감정이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우울증으로 봐야 하죠.
보통은 스스로가 자각할 수 있지만 본인이 못 느끼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주변에서 요즘 평소와
달라 보인다고 말하면 그게 위험 신호일 수도 있는 거죠.

↳ 우울증 약 먹기 시작하면 평생 못 끊는대며?

증상이 좋아져서 약물 치료를 중단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울증 약을 평생 복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해예요. 부작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약물을 끊으면 다 없어지고 부작용이 아예 생기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약물+상담 치료 병행이 가장 효과가 좋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에요. 다만, 둘 다 할 여유가 없어 굳이 한 가지만 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우마다 다르지만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권해드려요. 심한 우울감으로 인한 인지 왜곡이 있는 상태에서는 상담이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저희 의사들끼린 ‘어떤 정신과 의사도 약보다 좋을 수 없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편견을 갖지 말고 우울증 증상이 있고, 자살 충동이 든다면 전문가와 약물 치료에 대해 상의해보셔야 합니다.

↳ 유명인이 자살하면 따라서 죽던데?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이 유명인의 자살에 영향을 받긴 해요. 더 깊게 공감하고 감정적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유명인들의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보도 지침이 중요해요. 자살 방법에 대해 언급하지 말고,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죠.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밴드 ‘너바나’의 보컬 커트 코베인이 자살했을 때 미국의 한 주에선 그의 자살에 대한 보도보다 자살 예방에 대한 보도를 더 많이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때 예외적으로 그 주만 자살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자살 사건이 있으면 ‘보도’와 ‘추모’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방’에도 집중하는 기사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 한창인 나이에 자살 생각이라니, 나약해서 그래

우리나라 2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실제로 병원을 찾는 20대들도 늘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어르신들 말씀대로 ‘요즘 애들이 특히 나약해서 그런 것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20대 환자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 ‘헬조선’이라는 말이 실감 나요. 하던 일바도 잘리고, 서류는 다 떨어지고, 집값은 말도 안 되게 비싸고... 사회가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환경이면, 힘내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답이 없다고 느끼게 될 수 있어요. 사회적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자살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인 ‘무망감(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개인이 나약해서 죽음을 생각하는 거라고 보는 시선은 매우 위험합니다.

↳ 자살은 비난받아 마땅한 잘못이라고!

고혈압, 당뇨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은 손가락질하지 않으면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만 유독 가혹한 잣대를 들이미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와 마찬가지로 우울증, 자살 충동 역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병이에요. 고혈압, 당뇨에 걸리고 싶어 걸린 것이 아니듯 자살 충동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우울증과 자살 충동도 약 먹고 관리하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어요. 자살 충동에 대해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단호하게 비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자살 충동을 환기하는 방법

당장 전문가를 만나러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닐 때, 자살에 대한 생각을 환기시켜주는 몇 가지 팁들을 기억해두세요.

Advice 중앙자살예방센터,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1

지금 있는 공간을 나오기

자신이 몰두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집 밖으로 나와 카페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기

죽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주변 사람에게 연락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면 가족, 친구, 애인, 선생님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3

생각의 주제 바꾸기

지금 몰두해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 아예 다른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지금 드는 안 좋은 생각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씹니다.

4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기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마음을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가벼운 운동하기

운동에 몰입해 정신적인 에너지를 신체적인 에너지로 분산합니다. 꼭 운동이 아니라도 산책을 하면서 햇볕을 쬐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6

3시간만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다짐하기

지금 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충동일 수 있습니다. 이를 견뎌내기 위해 이렇게 다짐해보세요. '딱 3시간만 아무것도 하지 않기!' 그리고 해당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자살예방상담전화로 연락하기

위의 방법이 여의치 않을 땐 24시간 연결 가능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 자살 충동을 느끼는 친구를 돕는 방법

주위에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가 있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할 때 참고하세요. 작은 행동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dvice 중앙자살예방센터,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1

최대한 말을 아끼고 경청하기

내 말은 아끼고 친구의 말에
경청해주세요. '부모님을 생각해야지'
'자살하고 싶다는 건 나쁜 생각이야' 등 내
의견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2

함께 맛있는 것 먹으러 가기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세요. 친구의 기분을
환기시켜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3

'내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기

친구가 자살 충동을 털어놓으면
그에 대해 인정하고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털어놓아 주어서 고마워.
힘들었겠다'라고 얘기해주세요.

4

질문하기

'응', '아니'로 답하게 되는 폐쇄형 질문
대신, 친구가 자신의 얘기를 풀어놓을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던지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5

학내 상담센터나 병원에 함께 가기

친구가 전문가와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가까운 학내
상담센터를 함께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6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 받기

주변에 자살 고위험군 친구가 있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자살예방센터나 지역 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해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을
받아보세요.

7

내가 모든 걸 도울 수 없다는 걸 인정하기

정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땐 스스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112 또는 119에 신고하고, 친구가
옆에 있을 경우 자살 시도가 가능한
도구들을 신속히 치우세요.

우리는 각자의 방에 누워 악몽을 꾀다

외로움과 불안, 두려움이 덮쳐오는 밤 나는 또 악몽을 꾸겠지. 그러나 그 악몽이 옆방으로
새어나가선 안 된다. 그 방은 당신만의 방이기에. 나는 오늘도 나를 가둔다.

Writer 독자 한아름 especiallyhan@gmail.com



악몽을 꿔다, 오늘도 고시원 방에 들어온 지 이제 한 달 즈음. 나는 여전히 적응하지 못한 채 매번 악몽을 꾀다. 좁은 방 안에서는 모든 의지를 상실한다. 친구들의 연락에 답장하기도 벅차 핸드폰을 멀리 치워놓고는 넷플릭스 시리즈를 틀어놓는다. 시간이 멈춘다. 가동 범위는 노트북에 꽂아둔 이어폰이 귀에서 빠지지 않을 만큼.

과제와 읽어야 할 책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즐리지 않은 건 아니지만 잠을 자기도 싫다. 본가에서 가져온 반찬도 2주째 한 통을 못 비웠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엄마 아빠는 조금이라도 내가 편해질까 하고 마련해주신 건데.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면 일어나서 방 청소를 한다. 기껏해야 머리카락을 치우는 정도. 그러곤 다시 진이 빠져 침대에 눕는다. 아, 못 하겠다.

나의 이 작은 방에는 화장실도, 샤워실도 없다. 다행히 외창이 있어 창을 열면 숨이 조금 트인다. 맞은편 아파트에선 가족들이 강아지와 놀아주며 TV를 보고 있다. 단란하구나. 가끔은 이곳에 영영 갇혀버린 느낌이다. 결국 내가 나가지만 않는다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모를 것 아닌가? 아, 외로워라. 누워서 천장을 바라본다. 풍성한 꽃잎이 그려진 회색빛의 벽지. 머리 위엔 에어컨, 발치엔 기능을 하지 않는 환풍구. 이따금씩 냉장고에서 냉각기 돌아가는 소리가 적막을 깬다. 너무 조용한 건 무섭지만 이런 소음은 짜증이 난다. 고작 나는 소리가 이거라면 차라리 적막이 나야. 우우우웅.

우울이 바닥부터 차오르기 시작한다. 울면 좀 나아질까 싶지만 눈물이 나지 않는다. 사실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란 걸 알고 있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걸. 내 이야기가 뭐 그리 대단한 비극이라고. 모든 척 울어 젖히기엔 나도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다만 그게 내 기분을 어찌할 순 없을 뿐이다. 새벽 즈음 알아들을 수 없는 프랑스 드라마가 끝이 났다. 내일 1교신데.

쿵쿵쿵. 눈을 떴다. 얇은 가벽 반대편 옆방에서 두드리는 소리다. 아, 소리를 지른 게 꿈이 아니었구나. 옆방 사람에겐 미안하지만 양심도 없이 고마운 마음이 든다. 덕분에 이 지독한 꿈에서 깨어났다. 익숙한 악몽에 시달린 나보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망쳐버린 옆방 사람이 생각나 마음이 무겁다. 죄송해요, 라고 포스트잇이라도 붙여야 할까, 하는 오지랖을 부리려다 이내 사그라든다. 무얼.

부엌을 공유하고, 창문 여닫는 소리가 들리도록 가깝지만 어쨌든 우리는 철저히 남이다. 살갑게 살아 무었해. 어차피 다들 떠날 사람들인데, 하는 내가 웃긴다. 아까는 외롭다며. 텅 빈 벽 사이 등을 맞대고 지내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남이다. 나는 당신을 모르고 당신도 나를 모른다. 외로움과 불안, 두려움이 덮쳐오는 밤 나는 또 악몽을 꾸겠지. 그러나 그 악몽이 옆방으로 새어나가선 안 된다. 그 방은 당신만의 방이기에. 나는 오늘도 나를 가둔다.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지내면 주로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 인간 하나 사는 데 물건이 이렇게나 많이 필요하다니. 사람은 도대체 밥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 거지. 왜 하루만큼만 하루가 된 걸까. 상념만 넘쳐나고 의욕은 지지부진하다. 답답해서 나가고 싶지만 누구 하나 만나자 부를 사람이 없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면 다들 바쁘고 복잡복잡하다.

침대에 누워 들어오는 빛으로 시간을 어림잡작해본다. 아, 오늘도 이렇게 가는구나. 올해도 이렇게 가겠구나. 메모장의 가장 최근 메모는 “사랑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외롭다. 자취 햇수가 늘어나도 혼자서 여전히 버겁다. 그렇지만 당신도 어렵다. 차마 타인의 방문을 두드리기엔 겁이 난다. 밤바람이 꽤 차지만 창문은 열어놓은 채 잘 준비를 한다. 첫차가 집 앞 정류장에 멈춰 서고, 나는 오늘도 당신의 노크 소리에 기대어 잠이 든다.



독자 여러분의 에세이를 기다립니다. magazine@univ.me로 A4 1장 이내의 글을 보내주세요. 잡지에 글이 실린 분께는 원고료 10만원을 드립니다.

아무나 만나면 망해요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과 어울려야 주눅 들지 않고 지낼 수 있다.
적어도 매일 만나는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Editor 김혜원 Illustrator 강한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나랑은 잘 안 맞아

이십 대 초반엔 소개팅을 꽤 많이 했다. 비록 운명의 상대를 만나진 못했지만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나는 거기서 연애가 아니라 인생을 배웠다.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으며, 타인의 마음을 얻기란 결코 쉽지 않고, 안 맞는 사람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게 얼마나 곤혹스러운 일인지, 전부 소개팅을 통해 알게 됐으니까. 무슨 말이나면, 대충 그 많은 소개팅이 다 망했다는 뜻이다.

그땐 정말 '아무나' 만났다. 주선자가 "어떤 사람이 좋아?"라고 물어도 똑 부러지게 대답을 못 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나도 몰랐기 때문이다. 누구 만나든 혼자 있는 것보단 낫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러는 동안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을 여럿 만났는데, 그중 한 명이 유독 또렷하게 기억난다. 칼바람 불던 초봄에 대학로 카페에서 만난 남자애였다. 개량 이야기하면서 언니들이 왜 이상형으로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을 꼽는지 이해했다.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달라도 너무 달랐다.

남자애가 테이블 위에 놓인 내 지갑을 가리키며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예쁘다"고 말한 게 시작이었다. 지하상가 가판대였나 아님 시장이었나. 어디서 샀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의미 없는 물건이었다. 아무튼 개가 말하는 '브랜드'가 아닌 것만은 확실해서 잘 모르겠다고 대충 얼버무리며 지갑을 가방에 넣었다. 뒤이어 "좋아하는 브랜드가 뭐냐?"고 물었을 때도, 나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옷 스타일을 추천해줬을 때도 그저 대화 주제가 바뀌기만을 기다렸다.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매력을 느끼지 못한 채 만난 지 3시간 만에 헤어졌다. 소개팅을 주선해준 친구에게 잘 안 됐다는 소식을 전하자 그 애는 본인이 더 아쉬워하며 말했다. "왜~! 잘 좀 해보지. 개 옷도 잘 입고, 키도 크고 완전 인기 많은 앤데. 별로였어?" 아... 그리고 보니 옷태가 남달랐던 것 같기도 하고, 어쩐지 미안했다. 자신의 멋짐을 알아봐주지 못하는 내가 얼마나 야속했을까.

내 친구들 사이에선 이게 멋진데, 여기선 아니네?

그런 종류의 야속함이라면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것 중 내가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건 별생각 없이 산 지갑이 아니라 공들여 고른 책이었다. '어쭙! 너 소설 좀 읽는 애구나'라고 알아봐주길 바랐는데(문학적 취향에 유치한 자부심이 있던 시기였다). 내가 그 애의 신상 운동화를 몰라봤듯, 개도 나의 갈고닦은 취향을 알아채지 못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동경하는 것을 좇으며 산다. 그런데 아름답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사람마다 다르다. 오케이. 그렇다면 각자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지내면 참 좋을 텐데. 나와 다른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종종 어려워진다.

어느새 나는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내 가치관이, 취향이 후진가?

뭘 입는지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유행 지난 셔츠를 걸친 날 보고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자신만의 확고한 음악 취향이 있는 사람이 최신 가요 톱 100곡만 듣는 이를 남몰래 무시하는 것. 취향이나 가치관에 우열을 매기는 오만함을 옳다고 편들어 줄 순 없지만, 솔직히 이해는 간다. 인간은 원래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만 타인을 판단하는 편협한 존재니까. 사실 그 망한 소개팅을 한 직후에 애인이 생겼다. 나와 취향도 비슷하고 가치관도 맞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 작정한 건 아니었는데 운이 좋았다. 개량 연애를 하는 바람에 한동안 '나와 잘 맞는 사람'에 대한 고민은 구석으로 치워 둘 수 있었다. 물론 연애 한정이었지만. 몰랐는데 애인이 생겼다고 해서, 나와 잘 맞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영원히 피할 순 없더라. 알바, 스터디, 조별과제, 인턴 생활 등 타인과 부대끼는 모든 곳에서 여전히 나와 다른 이들과 함께해야 했다. 가끔은 백조들 사이에 낀 오리가 된 것 같기도 했다.

왜 그 사람들만 만나면 바보가 된 기분이 들까?

어떤 곳에서의 생활은 '아무나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성사된 소개팅처럼 엉망이었다.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과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완전히 달랐다. 그리고 다른 것은 틀린 것으로 자주 오해받았다.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당연스럽게 반복됐다.

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만 만나면 바보가 되는 기분이었다. 소개팅 상대였다면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이네'하고 말겠지만, 불행히도 일주일에 다섯 번씩 꼬박꼬박 얼굴을 봐야 하는 사이였기에 나는 매일 조금씩 시들어 갔다. 특별히 잘못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주눅이 들었다. 마지막 즈음엔 나조차도 나를 의심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내 가치관이, 취향이 후진가?'

앞서 말했듯 내가 소개팅에서 배운 것은 연애가 아니라 인생이다. 나는 이제 안다. 아무나 만나면 망한다는 사실을!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과 어울려야 주눅 들지 않고 지낼 수 있다. 적어도 매일 만나는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와 다른 이를 밀어내며 배타적으로 살겠다는 말이 아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마음은 맑게 개기도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니까.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찾겠다는 뜻이다. 덧붙여 연인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서로 너무 다르고 안 맞는다면 갈라서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믿는다.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인생인데.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주인 된 도리가 아닐까 싶다.

#솔직한나의모습을보여줘 #노필터챌린지 with Galaxy

주변의 시선과 편견으로 인해 내가 좋아하는 나의 솔직한 모습을 감추고 살진 않았나요? 갤럭시는 밀레니얼들의 솔직한 삶을 응원하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을 당당하게 말하는 #노필터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챌린지 참여 수만큼 적립된 기금은 자신의 솔직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소년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서 청소년들의 솔직한 꿈을 응원해주세요!

Editor 김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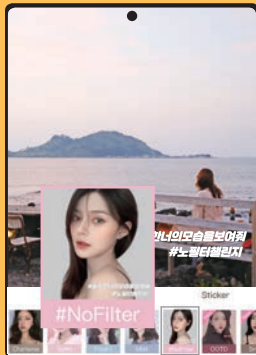
마이웨이 하면 나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다고?

#노필터챌린지에 참여하세요

참여 기간: 2019.10.14~2019.11.10

1

ULike 어플 스타일 영역의 #NoFilter 필터 활용
내가 좋아하는 솔직한 나의 모습 촬영하기



2

#솔직한나의모습을보여줘 #노필터챌린지
해시태그를 포함하여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3

다음 참여자로 친구 3명을 지목,
솔직한 모습 보여달라고 요청하기!

4

인스타그램 DM으로 발송된 기부코드 활용,
해피빈 사이트 접속 후 기부 참여!

※ 계정 전체 공개 및 필수 해시태그
포함 시에만 기부 코드 전송 가능



ULike 다운로드
바로가기

그래! 나 예민하고 생각 많고 목소리도 크다



Mini interview

김주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자주 대들었어요. 부모님이 혼내면 다른 어린이들처럼 그만히 있지 않았죠. 나만의 이유를 가지고 행동한 건데 왜 혼나야 하는 건지 납득할 수 없었거든요. "세다"는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제 자신을 미워하기도 했어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제 성격은 단점만큼 장점도 큰 성격이거든요. 그걸 인정하니까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지금 이런 것들은 제가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걸 이제 알아요.

확신이 없는 시기일수록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해



Mini interview

서정

어느덧 21살. 언제부턴가 내가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것보다는 미래를 위해 해야만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됐어요.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한심해 보이진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문득 이상했어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왜 남의 눈치를 보지?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남의 말보다 내 마음 속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살려고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주어진 한 길로 직진만 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실수 좀 할 수도 있지, 그래도 난 춤추는 게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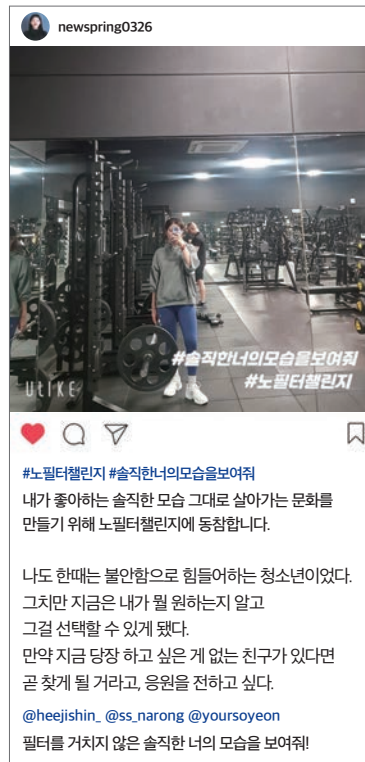


Mini interview

최사라

어렸을 때부터 춤을 좋아해서 점심시간마다 춤을 쳤어요. 춤은 제 인생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소중한 취미 그 이상의 것이예요. 춤 자체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춤을 추면서 만나는 사람들이예요. 춤을 추면서 낯가림도 많이 없어졌어요. 가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선뜻 말을 건네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문득 놀라기도 해요. 앞으로 춤을 추는 모든 순간에 항상 감사하며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 제 곁에 있는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춤추요!

필라테스 강사가 되고 싶은 미대생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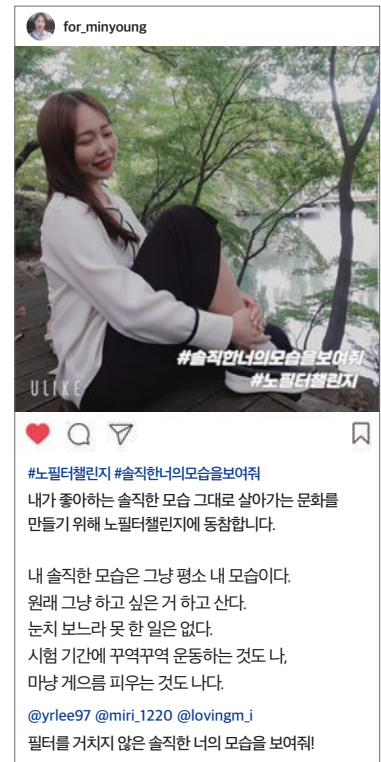


Mini interview

정새봄

지인의 이야기인데 원하는 직업을 가족들이 엄청 반대했대요. 그래도 너무 하고 싶어서 끝까지 밀고 나갔고 결국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자리를 잡고 나서 가족들에게 그때 왜 그렇게 반대했냐고 투정했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 삶에 제일 관심 있는 건 나구나! 부모님도 친구도 아니구나. 뜬금없지만 요즘 전 필라테스 강사를 꿈꾸고 있답니다.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비록 전공과는 관련이 없더라도 말이에요.

눈치 보느라 못 한거? 없는데요 그냥 원래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Mini interview

이민영

대학에 입학해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 생각보다 사람들은 남에게 큰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뜻을 입든 어떤 글을 쓰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든 별로 상관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나의 삶을, 행복을, 젊음을 책임져 줄 순 없으니까요. 나보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놓치지 않으려고요.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거니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마음먹은 건 어떤 방식이든 해내는 게 제 모습을 좋아하거든요.

#대학생만을 위한_금주의_꿀정보

극단 파릇



연극 <한뼌 사이>

bondavinci.com



로맨틱 코미디 연극 <한뼌 사이>가 대학로에서 오픈런 중이다.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청춘 남녀 4명의 울고 웃는 사랑 이야기를 유쾌하게 담은 내용으로, 실시간 예매율 1위를 달성하며 대학로 대표 로맨틱 코미디로 자리매김한 작품이기도 해, 풋풋한 연애 시절을 떠올리며, 유쾌한 시간을 보낼 연극을 찾는다면 딱이야. 친구, 가족, 연인과 함께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하니, 이번 주말엔 연극 <한뼌 사이> 어때?

공연 일정 ~ 오픈런 공연 장소 대학로 서연아트홀

아트플러스씨어터



연극 <홍터>

ticket.interpark.com

공포 연극 <홍터>가 대학로에서 공연 중이다.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여주인공 '지은'과 얽힌 두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으로, 죄책감을 통해 한 인간이 어디까지 몰리는지 보여준다고 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손에 땀을 쥐게 만든다고 하니, 궁금하면 홈페이지를 참고해봐!

공연 일정 오픈런
공연 장소 대학로 이미지아트센터
풀빛극장 3층

삼형제ent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

ticket.interpark.com

블랙코미디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가 대학로 삼형제극장에서 오픈런 중이다. 죽음, 자살이란 무거운 주제를 해학적으로 해석해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해. 특히, 관객 참여 방식으로 매회 공연이 새롭게 진행된다고 하니, 우울한 기분을 달래고 싶다면 지금 예매해봐!

공연 일정 오픈런
공연 장소 대학로 삼형제극장

아웃캠퍼스 cafe.naver.com/outcampus

Editor 박소희 soheel@univ.me

HR

주최	직무	홈페이지	지원 마감	기타
롯데그룹	롯데칠성음료, 롯데글로벌리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e커머스, 롯데면세점, 롯데컬처웍스,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job.lotte.co.kr	~ 11.6	과제 심사 > L-TAB(조직 적합 진단) > 면접 전형 > 인턴십 > 최종 면접 > 건강검진 > 입사/입문 교육

공모전

주최	공모전명	분야	지원 마감	상금
제주에너지공사	제1회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친환경 사진 공모전	사진	~ 11.8	대상(1팀) 50만원 및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상, 최우수상(1팀) 30만원 및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상, 우수상(2팀) 20만원 및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상, 장려상(4팀) 10만원 및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상
국가보훈처	6.25전쟁 70주년 사업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 11.14	대상(1건) 500만원, 우수상(3건) 100만원, 장려상(6건) 50만원
해커스	해커스 광고 공모전	광고	~ 11.24	대상(1명) 500만원, 최우수상(3명) 200만원, 우수상(3명) 100만원, 참가상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및 2020년 1, 2월 토익 중국어·일본어 강좌 수강료 지원권
서울산업진흥원	2019 좋은 일터 기업 콘텐츠 공모전 시즌2	콘텐츠	~ 11.29	대상(1팀) 300만원, 최우수(2팀) 200만원, 우수(3팀) 100만원, 장려상(30팀) 50만원
행정안전부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체험사례 공모전	동영상, 웹툰, 수기	~ 11.30	대상(3편) 200만원 및 행정안전부 장관상, 최우수상(3편) 100만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우수상(6편) 50만원

대외활동

주최	대외활동명	활동 기간	지원 마감	활동 혜택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 몰링트렌드 마케터 15기 모집	2개월	~ 11.17	마케터 최종 합격자 입사 지원 시 가산점 제공, 마케터 활동 종료 후 수료증 및 지원금 지급, 월별, 최종 활동 우수자 포상 및 상금 지급, 타임스퀘어 이벤트 참가 기회 제공(연말 카운트다운 파티 등)
LS그룹,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LS드림사이언스클래스	3개월	~11.18	LS드림사이언스클래스 프로그램 교통비 및 활동비 지원, 프로그램 진행 중 기숙사 제공(동해 지역 한정), 프로그램 진행 완료 후 소정의 장학금 지급
한국레뉴	대학생 기자단 1기	1년	~ 11.28	UCC 주제별 시상, 활동 최우수자, 우수자 별도 포상, 한국FPSB 활동 인증서 발급
뉴트리라이트	대학생 크리에이터 10기	6개월	~ 20.1.5	영상 제작 교육 제공, 매월 팀 활동비·제작비 지급, 매월 우수 활동자 및 팀 시상, 최종 우승 팀 상금 300만원 수여 및 최종 우수 기자 상금 50만원 수여(3명), 해외 취재 파견 등, 수료증 수여

강연·이벤트

기업명	행사명	홈페이지	일정	장소
파파프로덕션	연극 <라이어>	ticket.interpark.com	오픈런	대학로 민송아트홀 1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네

눈부심 뽀뽀! 축축한 쿠퍼비전의 눈 건강 클래스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났다면 분명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의미일 터. 쿠퍼비전 눈 건강 클래스 현장에 온 이들의 눈이 그러했다.

Editor 김예림

지난 10월 1일, KB청춘마루에서 <쿠퍼비전x아이린 눈 건강 클래스>가 열렸다.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행사에는 쿠퍼비전 코리아의 홍보대사인 레드벨벳 아이린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럭키드로우,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특히 행사장의 제품 체험존에서는 쿠퍼비전의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3종인 마이데이, 클래리티, 바이오피니티 중 자신에게 맞는 타입을 알아보고 추천을 받을 수 있었다. 참가자 전원에게 렌즈 무료 교환권까지(핵이득)! 이어서 진행된 쿠퍼비전 눈 건강 클래스에서는 올바른 렌즈 사용법에 대한 강연이 이뤄졌다. 그중에서도 참가자들이 가장 흥미를 보인 부분은 렌즈를 장시간 착용하는 사용자에게 산소 투과율이 높은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의 렌즈를 추천한다는 대목! 참가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강의에 집중했다. '눈 건강 놓치지 않을 거예요'



간증 후기, 쿠퍼비전 눈 건강 클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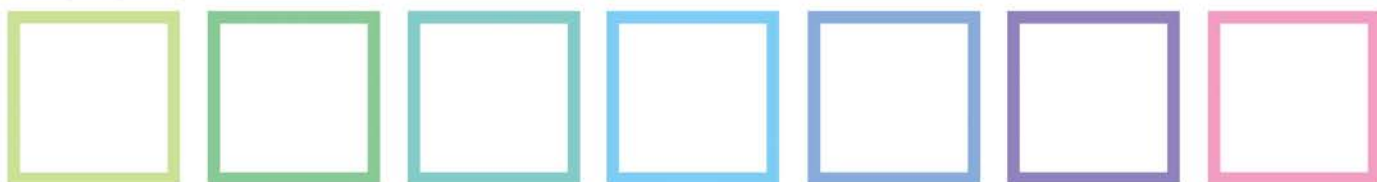
- “ 설문 조사를 통해 자기에게 맞는 렌즈 추천해주는 것이 흥미로웠어요. 가장 좋았던 것은 눈 건강 클래스예요! 시력에 대한 기본 상식부터 렌즈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유익했어요. 이번 쿠퍼비전 행사를 계기로 눈 건강에 좀 더 신경 쓰려고요. **By 백지** ”
- “ 그동안 안경점에서 추천해주는 렌즈만 썼었는데 이번 행사에선 저의 생활 패턴에 따라 딱 맞는 렌즈 타입을 추천해주시고 그 이유도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렌즈 각각의 특징, 렌즈 관리에 있어 주의 사항 등을 꼼꼼히 알려주셔서 궁금했던 내용이 많이 해소됐어요. **By 아이린** ”
- “ 평소엔 일회용 렌즈를 사용하는데, 보통 오후만 되면 눈이 아프고 건조해서 불편함을 겪었어요. 강연에서 렌즈 착용 시에 주의 사항이나 렌즈 관리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By 소나무** ”

두 개의 설명글 중
올바른 설명에 해당하는 글자를 조합하면 코드 완성!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비밀의 코드를 찾아라



일러스트출처 Designed by gstudiomagen / Freepik



- | | | | |
|---|--|-------|--------|
| ①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되는 청년고용정책이다 | | 온
오 |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월 20만원씩 3개월간 지원되는 청년고용정책이다 | | |
| ②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이다 | | 나
라 |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상시 접수이다 | | |
| ③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 연령은 만 18~34세이다 | | 인
임 |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 연령은 만 18~24세이다 | | |
| ④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예비교육은 매월 11일~말일 진행된다 | | 총
청 |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예비교육은 매월 11일~15일 진행된다 | | |
| 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청년고용정책이다 | | 연
년 |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카드 포인트로 지원해주는 청년고용정책이다 | | |
| ⑥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받는 도중 취업 또는 창업 성공 시 추가 혜택은 없다 | | 엔
센 |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창업 성공 후 3개월 근속 시 현금 50만원의 취업 성공금이 제공된다 | | |
| ⑦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유예/수료생은 불가하다 | | 처
터 |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학점미수자(졸업유예/수료생)도 가능하다 | | |

퀴즈의 정답은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어서 와, 부대찌개 위크는 처음이지?

보글보글 끓는 뽕안 육수 사이로 얼큰하게 스며드는 특제 소스, 다양각색의 소시지와 햄 여기에 콩나물, 치즈, 라면 등 취향대로 채워 넣는 각종 사리까지. 많은 이들의 점심 메뉴를 너머 소울푸드로도 지목되는 부대찌개의 특별한 14일이 시작되었다. 부대찌개 덕후라면 놓쳐서는 안 될 아메리칸 부대찌개 위크를 소개한다.

부찌덕후 모여라! 부대찌개 위크

기간: 2019년 11월 4일~17일(2주간)

장소: 이태리 부대찌개, JVL 부대찌개, 남기남 부대찌개, 부대집 4개 브랜드 전국 64개 매장

혜택: 부대찌개 등 위크 메뉴 10% 할인

이 신선한 조합은 뭐지?

부대찌개 위크

익숙한 단어 둘이 만나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다. 부대찌개 위크는 말 그대로 부대찌개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부대찌개 축제다. 미국육류수출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 첫 문을 열었다. 이번 달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열리는 부대찌개 위크에서는 오리지널 미국산 햄과 소시지를 사용하는 부대찌개 전문점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태리 부대찌개, JVL 부대찌개, 남기남 부대찌개, 부대집 4개 브랜드 전국 64개 매장이 참여하여 부대찌개를 비롯한 다양한 위크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니 부대찌개를 마음껏 즐기고 싶은 부찌덕후라면, 이번 주 부대찌개 위크를 놓치지 말자.

부대찌개의 생명은

햄과 소시지!

부대찌개는 미군 부대의 '햄'이 그 시작이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나온 햄과 소시지에 김치, 콩나물 등 다른 재료를 더해 끓여 먹던 찌개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요즘 부대찌개 트렌드는 시선을 사로잡는 강렬한 비주얼이다. 여기에 다양하고 품질 좋은 미국산 햄, 소시지, 런천미트, 베이컨, 살라미 등을 아낌없이 넣어 풍성한 맛과 풍미까지 끌어냈다. 이번 부대찌개 위크에서 완벽하게 업그레이드된 부대찌개를 만나보자.



미국육류수출협회란?



순수 곡물로 키워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미국산 육류 홍보를 위해 설립된 미영리기구다. 부대찌개 위크 및 미국산 육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육류수출협회 공식 채널 '아메리칸 미트 스토리(American Meat Story)'에서 확인할 수 있다.

🏠 www.usmef.co.kr 📷 인스타그램 [Instagram.com/American_meat_story](https://www.instagram.com/American_meat_story) 📺 네이버 post.naver.com/us_mef

부대찌개 위크가 추천하는 부찌 4대 천왕



6대리부대찌개
前泰利 SPICY SAUSAGE STEW

좋은 재료와 정성이 들어간 음식은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 이태리 부대찌개는 많을 이(利), 클 태(太), 이로울 리(利)라는 뜻으로 푸짐한 양, 큰 만족, 좋은 재료로 음식의 기본에 충실한 부대찌개를 추구한다.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은 음식을 위해 부대찌개에도 디자인을 입혔다. 냄비 가득 덮여있는 붉은 물결의 햄과 소시지를 보고 있으면 제대로 대접받는 기분마저 든다. 여기에 밥과 라면 사리도 무한리필! 허기진 몸과 마음을 채우기엔 이만한 곳이 없다.



추천메뉴
부대전골 9천원/1인분
6가지 종류의 오리지널 미국산 햄과 소시지, 신선한 야채 육수와 특제 소스로 품격을 높인 부대전골

info
판교점 포함 총 39개 지점
031-696-0310
www.italybudae.co.kr



JVL 부대찌개

부대찌개의 맛을 좌우하는 건 누가 뭐래도 역시 '햄'과 '소시지'다. 최고의 부대찌개를 위해 80년 전통의 미국 No. 1 소시지 브랜드 잔슨빌이 도전장을 던졌다. 잔슨빌과 함께하는 프리미엄 부대찌개 레스토랑 JVL은 최고급 소시지만을 사용하여 가성비 끝판왕의 부대찌개를 선보인다. 소시지 전문 브랜드에서 만든 소시지를 사용한 만큼 맛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 콩나물을 듬뿍 넣어 개운한 맛까지 더해 술안주로도 인기니 낮과 밤, 언제 즐겨도 좋다.



추천메뉴
JVL 부대찌개 7천 8백~9천원/1인분
풍부한 육즙의 잔슨빌 소시지와 햄을 푸짐하게 넣고 콩나물을 곁들여 개운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인 부대찌개

info
삼성본점 포함 총 21개 지점
02-568-8288
www.jvl-fs.co.kr



남기남 부대찌개

부대찌개의 가장 큰 매력은 '푸짐함'이 아닐까? 종류별로 들어가는 햄과 소시지에서 냄비를 빈틈없이 채우는 각종 사리까지! '남길 수 없는 맛', '남길 수밖에 없는 양'이라는 뜻의 '남기남 부대찌개'는 맛과 양으로 승부를 던졌다. 클래식 소시지, 초프트햄, 살라미, 볼로냐 등 프리미엄 햄을 아낌없이 사용하여 끓일수록 깊은 맛을 내는 남기남 부대찌개는 먹고 있어도 먹고 싶은 중독성 깊은 맛을 자랑한다. 오늘 먹으면 내일 또 생각나는 마성의 부대찌개가 궁금하다면, 이번 주, 부대찌개 위크를 놓치지 말자.



추천메뉴
부대찌개 9천원/1인분
깔끔하고 개운한 육수에 클래식 소시지와 초프트햄으로 맛을 낸 가성비 최고의 부대찌개

info
광교점 031-211-5564
파주점 031-942-7337
www.ngnbd.co.kr



부대집

얼큰한 육수가 스며들어 적당히 매콤한 맛부터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식감까지. 햄과 소시지는 부대찌개의 존재 이유이다. 여럿이 먹을 땐 자연스레 젓가락질이 빨라지지만 부대집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부대집은 '햄, 소시지 먹고 배 터져보자!'를 콘셉트로 프랑크 소시지, 초프트햄, 살라미, 볼로냐, 베이컨 등 프리미엄 소시지를 듬뿍 쌓아준다. 여기에 담백한 채소 육수로 맛의 균형까지 잡았으니 오늘 부대집으로 햄&소시지 파티 갈 파티원 모집합니다.



추천메뉴
부대집 부대전골 9천원/1인분
프랑크 소시지, 살라미, 볼로냐, 베이컨 등 오직 햄과 소시지의 양과 맛으로 승부하는 부대전골

info
판교본점 031-739-8307
서현역점 031-708-8307
www.instagram.com/budaezip

영어 계획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영국문화원 겨울방학 집중코스

“이번 방학엔 영어를 박살내겠어!”라고 맹세하곤 매번 실패하는,
작심삼일 대학생에게 추천하는 영국문화원 겨울방학 집중코스 포인트 5

Editor 이정섭



영국문화원 겨울방학 집중코스 POINT 5

영국문화원 겨울방학 집중코스

일정 및 코스 정보

- 세션 1: 2020년 1월 7일(화) 개강
- 세션 2: 2020년 2월 4일(화) 개강

※ 세션별 등록 가능

-하루 3시간, 주 3회 수업

-오전/오후반 운영

프로모션

세션1, 세션2 동시 등록 시
10% 할인

친구와 함께
세션 1, 세션 2 동시 등록하면
15% 할인

세션 종료 후,
myClass 영어회화코스 등록하면
10만원 할인

영국문화원 어학원
레벨테스트 예약



POINT 01

영국문화원에서 영어 공부할?

영국문화원은 전 세계 100여개국 1억 여명의 학습자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온 85년 전통의 전문 영어 교육 기관. 전문 커리큘럼 개발팀이 만든 전 세계 영국문화원 공통의 수준 높은 교수법을 바탕으로, 케임브리지 대학 또는 런던 트리니티 대학 전문 영어 교사 자격을 보유한 강사들이 수준 높은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POINT 02

진짜 언어 배우듯 통합 교육

읽기 따로, 듣기 따로. 이렇게 배웠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반쪽짜리 영어 익히게 되기 십상. 나중에 직장인이 되어 외국에 이메일 요청이라도 받으면 어찌나 곤란한 지. 영국문화원의 강의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모든 스킬을 통합적으로, 진짜 언어 배우는 방식으로 가르친다.

POINT 03

너는 무조건 말을 해야만 한다

돈과 시간을 들여 영어 학원에 갔더니, 자신감 부족으로 사람들 속에 숨어 시간을 때우기 일쑤. 영국문화원은 100% 면대면(face to face) 그룹수업으로 토론형 실용 회화 중심수업을 통해 피할 길 없이 영어로 대화해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실력뿐 아니라 회화에 자신감도 생긴다.

POINT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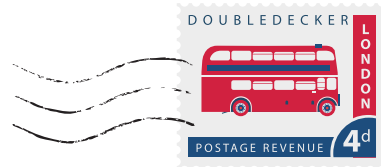
짧게 빠르게 배우자

조금씩 천천히 오래 공부하기. 이게 좋지만 성격 급한 여러분이 안 되는 것 알고 있다. 차라리 눈 딱 감고, 겨울방학 두 달만 달려보는 게 어떨까. 영국문화원 겨울방학 집중코스를 통해, 어학연수 수준의 영어 노출 환경에서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다.

POINT 05

당신 방학 스케줄에 맞춰 원하는 만큼

겨울 여행 계획이 있어 두 달 통째로 듣기 애매한 당신. 그럴까 봐 세션을 나누어 놓았다. 영국문화원 겨울방학 집중코스는 4주씩 2개월간, 총 2개 세션으로 운영되는 '세션형 등록제' 수업이다. 가능한 일정에 맞는 세션을 등록할 수 있다.



방학에 아무 계획 없는 너에게 추천하는 대학생 어학연수 **in**서울

영국문화원 어학원 겨울방학 집중코스

01 | 서울에서 하는 **2달 어학연수**

어학연수 수준의 영어 노출 환경과 인텐시브 커리큘럼으로 2달 간 집중적인 영어 학습 가능

02 | 실전 영어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

100% face-to-face 그룹 수업으로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를 고루 학습하며 영어 커뮤니케이션의 전 영역 스킬 향상

03 | 세계 최고 수준의 커리큘럼과 영국문화원이 검증한 **수준 높은 강사진**

85년 전통, 세계적인 영어 교육기관 영국문화원의 체계적인 커리큘럼
전 강사진, 케임브리지 대학 또는 런던 트리니티 대학 **전문 영어 교사 자격 보유**

☎ 1522 - 8006

영국문화원 성인어학원
을지로, 강남, 잠실 센터

영국문화원 어학원 🔍 을 검색하세요

| 국내 유일 20대 전문 연구소의 요즘 세대 본격 관찰기 |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0



값 17,000원 | 대학내일20대연구소 지음

부록

한눈에 보는 트렌드 히스토리 맵
& 연간 트렌드 이슈 캘린더

PART 1

밀레니얼-Z세대 탐험

- ✓ 밀레니얼-Z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 세대 구분과 정의
- ✓ 2019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리뷰
- # 마이싸이더 # 가취관 # 소피커 # 팔로인 # 실감세대

PART 2

NEW

2020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키워드 5

- 다만추세대** | 다양한 삶을 만나며 나의 가능성을 확장하다
- 후렌드** | 온라인에서 누구와도 서슴없이 친구가 되다
- 선택력** | 먼저 행동해서 선택 변화를 끌어내다
- 판플레이** | 참여할 수 있는 '판'을 열고 놀다
- 클라우드 소비** | 소유보다 공유로 소비의 밸런스를 맞추다

PART 3

중인 밀레니얼-Z세대

- ✓ 워킹 트렌드 : 그들과 함께 일하는 법
- ✓ 미디어 트렌드 : 그들을 이해하는 디지털 코드 4
- ✓ MZ TOP BRAND AWARDS
- ✓ MZ 신조어 사전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0》은
전국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 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